

곡성군,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운영

11월까지 초중고 학생·관광객 대상

9종 교육용 한복...체험 중심 교육

곡성군이 지난 9일부터 2020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사업을 통해 11월까지 초중고 학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복입기에 대해 안내하는 등 한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복을 재미있게 배우고 직접 입어 보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한국 복식을 전공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강사가 교육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은 한복과 신한복의 의미,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오고 있는 옷의 형태를 배울 수 있다. 단령, 앵삼, 원삼, 철릭 등 9종의 교육용 한복이 구비되어 있다.

지난 9일, 11일 교육에 참가한 옥곡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 보면서 화려한 복식에 감탄했다.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림의 옷차림인 앵삼을 입은 한 학생은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라고 즐거워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을 통해 한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곡성=김광휘기자

담양군, 추석맞이 비대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

담양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담양 농특산물 홍보 및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2020 추석맞이 비대면 직거래 판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택배 주문판매로 방식을 변경, 7일부터 강남구와 용산구, 서울도시농업박람회 등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 대상으로 택배 주문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직거래에서는 청정한 담양의 자연과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재배한 햅쌀을 비롯해 각

종 장류와 쌀강정, 약과, 쌀엿, 참기름, 들기름, 죽순, 죽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군은 이번 장터를 통해 도·농간 소통과 함께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맛과 믿을 선포하고 고정 소비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지쳐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행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이달 말까지...납기 경과하면 3% 가산금

화순군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348건에 2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

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말소와 소유권이

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을 받

문하거나, 신용카드·인터넷저고 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안에 내 달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하반기 200억원 규모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추진

대기환경 문제 대규모 녹지 테마 공간 조성



나주시가 빗가람 혁신도시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억원 규모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생활권의 열섬현상, 미세먼

지·약취 등 각종 대기환경 문제를 대규모 녹지 테마 공간 조성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이다. 숲길을 통해 발생하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도시 내 공기순환을 촉진시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폭염을

유발하는 열 공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시키는 원리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10대 지역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으로 나주시가 지난 해 산림청 주관의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 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해왔다. 바람길 숲 조성에는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하반기부터 기본설치설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빗가람동 일원에 각자의 기능을 갖춘 4개 테마 숲을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4개 테마 숲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약취 완화를 위한 '공해차단 숲' △ 배메산·호수공원 일대 환경에 특화된 '디딤 확산 숲' △교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보완 식재하는 '순환가로연결 숲' △배메산으로

연결되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바람연결 숲' 등으로 구성됐다.

바람길 숲은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금성산 일원에 조성중인 '국립나주숲체원'과 함께 나주시가 올해 선포한 산림정책 프로젝트인 '사람 중심 그린인프라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정책'과 '살과 쉼이 있는 공원', '운치와 멋을 더하는 조경',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산림보호', '도시와 숲을 이어주는 빗가람 공원녹지' 등 5대 미션으로 구성돼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바람길 숲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산업화로 야기되는 사회·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그린인프라'의 대표 모델 사업"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장성군,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 감면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주일(일~토요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 받는다. 1주 안에 1대의 농기계를 2일간 임대했다면 나머지 1일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가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또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자한다면 동일하게 '1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농가의 어려움

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당초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여파로 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장성읍 본소, 서부본소, 북부본소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총 88종 84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료 감면 시행 후 농가의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부쩍 늘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